“고향에 대한 그리움, 불심으로 달래요”

이주민단체들,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봉축법회


스리랑카 불자들이 5월 7일 열리는 봉축법회서 사용될 전통등을 만들고 있다.

부처님 신날을 앞두고 한국의 이주민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불자들은 불교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천태종 인천 황룡사(주지 갈수)는 4월 16일 3층 대법회에서 베트남불교 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회에는 베트남 불자 700여 명이 모였다. 천태종은 2015년 부산 삼광사, 2016년 청주 명상사에 이어 베트남 불교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4월 7일 부산 삼광사에서 2박 3일간 남부지역 법회가 열렸으며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황룡사에서 중부지역 법회가 열렸다. 법회에서는 수료증 증정과 감사패 수여, 퀴즈대회 시상식 및 독일 벤짝사 주지 틱느디엔 스님의 법문 등이 진행됐다. 황룡사 주지 갈수 스님은 “고향이 그립더라도 이 시련을 이겨내면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베트남 불자들을 위로했다.

이에 앞서 **캄보디아불교센터(대표 린사로)**는 4월 2일 안산 감골시민홀에서 ‘캄보디아 쫄쯔남 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쫄쯔남 축제에는 캄보디아불교센터 린사로 스님과 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포우끙 · 이엔에인 스님,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해 타국생활에 지친 마음을 달랬다.

서울네팔법당(주지 쿤상)은 5월 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일원동 네팔법당에서 네팔 이주민들을 위한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쿤상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이라고 해도 공장이 쉬지 않는 곳이 많아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법회를 위해 네팔에서 카말까망 스님이 방한해 법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주 스리랑카마하보디사(주지 와치사라)도 5월 3일 양주 마하보디사에서 스리랑카 이주민을 위한 법회를 열며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도 5월 7일 부처님오신날과 캄보디아 쫄쯔남 축제를 겸한 행사를 개최한다.

김현덕 마하이주민단체협의회 간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이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며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 한국마하위하라 사원**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 법회, 한국 · 스리랑카 수교 40주년 행사, 사원 착공식 등 행사를 5월 7일 오후 3시 평택 한국마하위하라 사원서 진행한다.

한국마하위하라 사원은 매해 남방불교국가의 부처님오신날인 ‘웨삭(Vesak Day)’을 맞아 봉축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기념한 사원 착공과 함께 진행된다.

행사서는 네란짜나 강둑 위 보리수나무에서 나온 보리수를 한국에 이운해와 친견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 연등 점등, 스리랑카 음식 무료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서 처음으로 스리랑카 전통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약 6개월이 소요되는 이번 전통등 제작을 위해 스리랑카 불자들은 매일 퇴근 후 2시간 씩 전통등 만들기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

노덕현 · 박아름 기자

‘차별 없는 세상’ 위한 후원 이어져

고운사 · NH농협은행 등 범사회적 나눔행사 ‘더 나눔’ 후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의 범사회적 나눔행사 ‘더 나눔’에 대한 후원의 손길이 막바지까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4월 18일 고운사(주지 호성)와 NH농협은행은 각 1,000만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원장협의회는 500만원을 ‘더 나눔’ 행사를 위해 기부했다.〈사진〉

자승 스님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더 나눔 행사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행사 당일(4월 23일)은 1배당 100원을 기부하는 모금행사도 있다. 난치병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고운사는 난치병 아이들을 위한 기도 후원금을 정해놓지 않았다. 작은 금액이라도 십시일반 보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라면서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석해 지역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눔 행사는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행사로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다. 행사 당일 동국대 정각원에선 난치병 아이들을 위한 용맹정진 3000배 기도가 봉행, 이원 생중계된다. 아울러 고운사와 직지사에서도 용맹정진 3000배 기도가 동시 진행된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4월 13~14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17 산하시설 중간관리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 선임팀장 및 과장 약 100명이 참석, 기관운영 및 사업실행, 불교적 가치관 등 역량교육을 실시했다.

박아름 기자

“최전방서 불법 활발히 전할 터”

군종교구, 군승 입대전 교육 회향식… 19명 임관 예정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4월 14일 부산 2보급단 금련사에서 부교구장 심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17년 임관예정 군승 입대전 교육’ 회향식을 봉행했다.〈사진〉

올해 임관예정 군승은 19명으로 지난 1월 13일 ‘2017년도 국방부 군종장교 선발’에 응시해 신체검사와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3월 13일 최종합격했다.

‘17년 임관예정 입대전 교육’은 3월 28일부터 4월 14일까지 3주 교육과정으로 군법회의 이해, 설법 점검, 불교의식 점검, 불교상담 방법론, 군 조직과 군종업무의 이해 교육으로 진행됐다.

군종교구 부교구장 심산 스님은 회향법문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군불교, 나아가서는 종단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불교의 내일을 내가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군포교 현장에서 신명을 다해 부처님 법을 전하는 군승이 되라”고 당부했다.

임관예정 군승인 구산 스님은 발원문에서 “호국불교의 숭고한 가치를 구현하는 군승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정법을 홍포하며 불조의 혜명을 잇는 수행자임을 항상 명심하겠다. 인천(人天)의 사표(師表)로서 정진 또 정진하겠다”며 군포교의 원력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백일법문’ 50년 맞아 대중강독회 열린다

불교인재원 5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개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50주년을 맞아 백일법문을 책으로 다시 읽는 대중강독회가 열린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5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 전법회관에서 ‘백일법문’ 대중강독회를 개최한다.

‘백일법문’은 성철 스님〈사진〉이 1967년 해인총림 초대 방장(方丈) 추대 후 해인사에서 백일간 불교에 대해 강설한 법문이다. ‘불교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선과 교, 수행 등 불교 전반에 대해 설했다.



당시 화제를 모은 이 법문을 상좌인 원택 스님이 글로 옮겨 1993년 책으로 편찬됐으며, 2014년 보다 쉽게 풀어 쓴 개정 증보판이 출간됐다.

엄상호 이사장은 19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고우 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이 불교입문서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평할 정도로 불교를 제대로 정리한 법문이자 책”이라며 “백일법문 50주년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최초로 강독회를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강독회에는 성철 스님 상좌 원택 스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박희승 한국문화연수원 교수, 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 등이 나서 강연과 강독을 진행한다. 또 매 공부마다 10분씩 참선을 병행한다.

참가회비는 10만원으로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한다. 청년 포교를 위해 30세 이하는 무료로 수강 가능하다.

한편, 불교인재원은 5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11주간 제5기 성철 생활참선 입문코스를 개강한다. 입문코스는 성철 스님이 주석한 해인사 백련암 참배와 겁외사 수련회도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불교인재원 홈페이지(www.injaewon.org)에서 확인가능하다. 1661-1108

노덕현 기자

108km 마라톤 참여하고 나눔도 실천

불자마라톤동호회, 동행에 86만4000원 전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자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회장 정해선)는 4월 15일 불교108울트라마라톤대회에 앞서 조계사에서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86만 4000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울트라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80명의 회원들이 각각 1만800원씩 적립해 마련한 것이다.

불교108울트라마라톤대회는 서울 조계사를 출발해 강남 봉은사 등 수도권에 위치한 주요 사찰을 거쳐 다시 조계사로 돌아오는 코스로 오후에 출발해 16일 새벽까지 17시간, 108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창원 성불사 주지 승지 스님과 정해선 회장 등 250여 불자 마라토너가 참석했다.

정해선 회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14회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

광진노인종합복지관 5월 18일까지 개최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5월 18일까지 ‘제14회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을 개최한다. 어버이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한마당에서는 나눔의등 축제, 광진구 어르신 행복나들이, 제13회 만수무강 칠팔순 잔치 등 지역사회 소외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5월 18일에는 노인공경의식 확산과 어버이에게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축제’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서는 신노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어르신들을 위한 ‘훌륭한 어버이상’ 표창, 다양한 문화공연, 무료 중식제공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사랑채 페스티벌, 아름다운 추억 여행’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옛향수를 자극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붓다’요금제로 통신비 절약하고!
매월 편리하게 시주도 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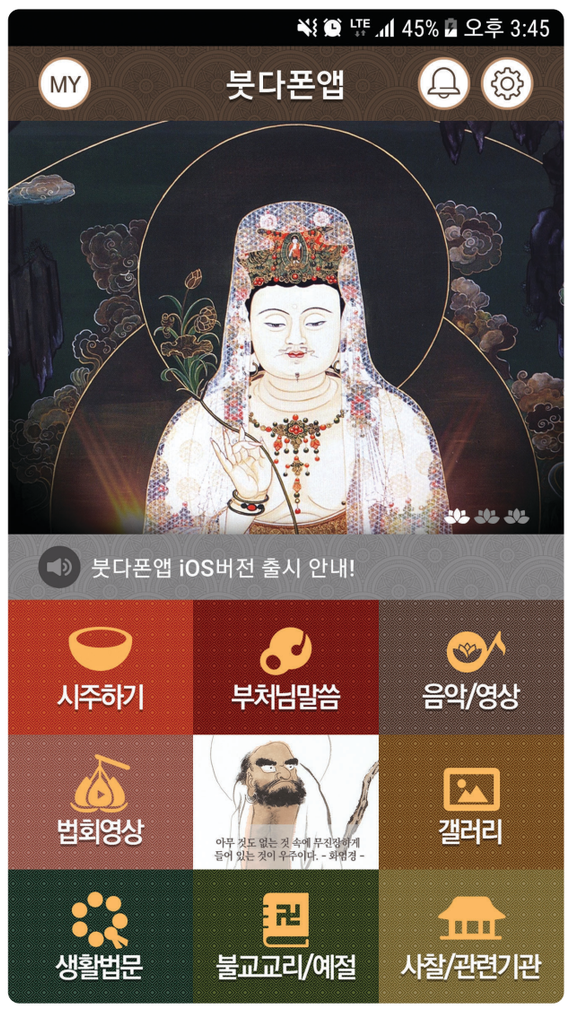
붓다폰은 불자 전용 휴대폰으로서, 불교인에게
전용 요금제 및 전용 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붓다폰 전용요금제 이용 시, 매월 사찰에 일정 금액 자동 시주!
붓다 10GB 100회선 매달 가입시 연간 7,800만원 자동 시주!

붓다폰 전용요금제

요금제명		데이터	음성 · 문자	기본요금	할인요금
붓다폰 전용 요금제	붓다 300MB	300MB	음성/문자 기본제공	~~32,890원~~	31,790원
	붓다 2GB	2GB		~~43,890원~~	42,790원
	붓다 6GB	6GB		~~54,890원~~	52,690원
	붓다 10GB	10GB+무제한		~~65,890원~~	62,590원

minigate 불자 전용 붓다폰 (가입문의 : 1588-7376)
우리 사찰에도 붓다폰 등록 / 가입하시려면 010-5937-7777 연락주세요.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붓다폰앱
- 부처님말씀
- 불교교리
- 생활법문
- 법회영상
- 명상음
- 경전 독송 서비스 등

Google play 붓다폰앱
앱 게임 영화 도서 뉴스스탠드